

제주사회복지신문

◇ 2020년 1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 전화: (064)702-3783~4/팩스: (064)702-3383 제147호

신년축시

모두 부자 되는 해

- 2020 庚子년에 부쳐

12지신 중 소 등에 타 1등한 걸
시새워 마라.

머리 한번 잘 굴린 게지.

소가 제일 부지런히 집중할 걸 알았거든

소를 2등시킨 건 미안하지만.

'쥐 갈다'는 말, 짹짹 툭툭하던 거지.

슬그머니 子時 틈타

야금야금 갇아먹긴 해도
잘 알고 있겠지
인간이 먹는 100가지 약 모두 쥐가
실험용인 걸.

목숨 내뿜 희생하고 있지 않아
너그러이 봐주게.

기름기 자르르한 먹거리 냉장고에 잘 간수하면
내 입에 오지도 않네.

2020 庚子년은 '쥐 띠' 해

너석들 때 지어 휘젓고 들락거리면

올 한 해
세상은 쥐판이 될 거네.

보고만 있으려나.

정초부터 단단히 맘먹어야지.

365일 앞을 보며

올 한 해 원 없이 뛰게.

너나없이 모두 부자 되는 해.

東浦 김길웅 시인 · 본지 편집위원

“따뜻한 사랑 넘치는 사회복지의 해 되기를...”

현장 근무자·자원봉사자·예비사회복지사 5인 열심히 배우고 실천 등 2020년 소망 풀어내

2020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현장 근무경력 20년, 자원봉사활동 20년, 올해 20살이 되는 예비 사회복지사를 만나 제주도내 사회복지에 대한 새해 소망을 들어 본다.<편집자 주>

▲김상현(사회복지사) 사회복지 현장에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살기 좋은 사랑의 온기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오승우(대학생) 사회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주도내에서는 사회복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2020년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양지희(대학생) 사람들이 사회복지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다. 사회복지지는 힘들 때도 있고 낯설 때도 있지만 사회복지를 배우다보니 사회복지가 좋은 길



▲사진은 앞줄 왼쪽부터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승우, 양지희, 강남중 학생, 자원봉사자 김홍수씨, 뒤쪽은 사회복지사 김상현씨.

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년에도 사회복지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해내면 좋을 것 같다.

▲강남중(대학생) 새해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

관·시설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있었으면 한다.

사회복지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직업인만큼 이 직업을 꿈꾸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김홍수(자원봉사자) 자원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우

리 주변에는 아직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2020년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생겨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면소개

- 신년메시지 2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 오피니언 6면
시론 · 특별기고
- 사회복지소식 7면
사회복지기관 장관상 수상 눈길

2020년 경자년 (庚子年)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에 초대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내 각계 인사와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를 개최 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0. 1. 10.(금) 11:00~13:00
- 장소: 본회 회관(2층) 삼다수홀
- 내용: 새해 인사말씀, 제8대 회장 취임식, 사회복지 유공자시상, 경품추첨, 오찬
-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사회 따뜻한 복지 다짐하는 새해 메시지

“도민이 행복한 ‘복지 1등 제주’ 구현에 최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랑하는 제주 사회복지가족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복을 상징하는 쥐띠 해를 맞아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열정과 사명으로 헌신하시는 사회복지인 여러분이 계시기에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제주사회가 늘 온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돌봄 서

스가 적시에 제공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주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 바랍니다.

경제가 엄중한 시기입니다. 서민들이 힘겨운 때일수록 복지는 더 필요합니다. 복지의 따뜻한 손길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도록 제주도정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인 여러분들께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은 지속가능한 제주형 복지체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원년입니다. 사회복지인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희망 공동체 제주, ‘복지 1등’ 제주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도록 혁신 의정 펼칠 터”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회복지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 흰쥐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하며, 근면·저축·다산·풍요를 상징하는 흰쥐의 기운을 받아 소원성취하시고, 기쁨과 행복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다양한 제주현안에 따른 대립과 갈등이 이어져

도민들이 많이 힘들었다면 새해는 도민대통합을 이뤄내고, 제주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는 빨리 보다는 느리지만, 멀리 가야하기 때문에 120만 내외 도민 모두가 함께 가야 합니다. 제주의 비

전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국제자유도시의 완성, 그리고 도민 주권이 보장받는 행복한 제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발걸음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의회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치의 기

능을 살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인데,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꿔 모든 도민이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도록 ‘혁신 의정’을 펼쳐겠습니다.

도민과 사회복지가족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주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에 역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회복지인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불어 아이 한 명, 한 명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는 따뜻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사회복지인 여러분을 비롯한 도민 사회의 사

랑과 응원에 힘입어 제주교육은 새로운 역사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IBO와 함께 국제바칼로레아(IB) 한국어화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수능 표준점수 평균 10년간 전국 1위의 성과도 올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충실히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복지특별도’ 완

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제주교육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을 시행합니다.

저소득층, 특수교육 대상자, 다자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디희망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4대 질병 의료비

지원)을 더욱 내실화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사회복지인 여러분들께서 아이들과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과 도민 함께하는 가교 역할 다할 것”



부형중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직무대행

2020년 새해, 사회복지가족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체계의 본격적인 가동과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으로 급격한 사회복지환경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기틀을 유지해 온 민간사회복지계의 헌신과 역량을 부인하

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라며, 눈앞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민간사회복지계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저희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역할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인만큼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바람을 한목소리에 담아 제주복지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협의회로서의 마땅한 역할수행에 더해 사회복지현장과 지역, 도민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해에는 넘쳐나는 정보 속에 자신에게 꼭 맞는 복지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윤리선언

이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중 캠페인을 전개하여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키워가겠습니다.

사회복지가 가치를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있음을 잊지 않고 새해에도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사회복지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직능단체장 신년사

새해를 맞아 제주지역 직능별 사회복지 단체장들의 신년사와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신는다. <편집자주>



김 남 식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나눔을 실천하시는 도민 여러분과 사회복지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사회복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기업, 단체, 그리고 일선에서 사회복지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동참과 성원에 힘입어 작년 한 해 동안 약 95억원에 가까운 모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금회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에도 '나눔으로 행복한 제주'라는 슬로건 아래 95억 9,300만

나눔으로 행복한 제주 만들기에 앞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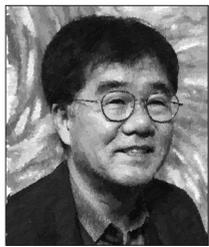
원을 목표로 다양한 모금사업을 전개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상인들의 정기기부 프로그램인 '착한가게'와 개인 고액기부 프로그램인 '아너소사이어티'는 기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분사업에서는 지역사회의 복지 욕구와 사회문제를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복지사업을 전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적 특성과 복지욕구를 융합한 새로운 선도적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주력하여 나눔으로 행복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 성 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협회장

'지혜롭고 사물을 꿰뚫어보는 안목과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흰 쥐의 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흔들림 없이 본분을 다해 오신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사회복지법인협회는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개인이 자산을 출연하여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사회연대에 입각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구심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인이 회원이 되는 협회입니다. 우리 제주사회복지법인협회

사회복지법인과 공공부문 협력강화 노력

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상호간의 협력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복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는 장애등급제 개편, 커뮤니티케어, 제주형 전달체계 등 사회복지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많은 변화를 꾀하며 서로 바쁜 한 해였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올 해에도 우리 사회복지인이 격의 없는 소통으로 서로 화합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틀림없이 기쁨과 보람이 찾아올 것입니다.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바위처럼 꺾이지 흔들리지 않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허 순 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장

안녕하십니까?

새로이 희망을 천명하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복지현장은 정책이 먼저 시행되고, 법률과 현장이 뒷받침 하다 보니,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제주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전문성과 실행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한, 우리 협회에서 처음 실시한 복지포인트 시행은 현장의 많은 지지와 우려에도, 비정규직까지의 확대를 통해 우리 안에서의 차별을 없애는데 기여했으며, 향후에는 적용범위와 예산확대로 차별을 없애고 처우개선의 효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협회는 55년의 전통과 역사를 이

도민복지 핵심주체로 자리매김에 최선

어가는 새로운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 새로운 시도의 목표는 오직 하나, '회원 중심의 협회, 사람 중심의 협회'를 통해 도민복지 핵심 주체로서 사회복지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중받는 사회복지사, 회원 중심 협회, 최고의 전문가 사회복지사, 일할 맛 나는 복지현장, 함께 만드는 복지제주가 될 수 있도록 실행목표를 두고 회원들과의 소통과 참여로 주체적인 활동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새해는 제주사회복지사들에게 하루하루가 선물 같은 날들이 되길 바라며, 그 길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사회복지단체 회장 선출 잇따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8대 회장에 고승화 후보가 당선됐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달 6일 협의회 회관 2층 삼다수홀에서 열린 2019년도 제2차 임시총회에서 제8대 회장으로 단독출마 한 고승화 후보가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고 신임 회장은 이날 투표에서 투표인수 총 131명 중에 126표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2020년 1월 13일부터 3년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4일 치러진 제14대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허순임 후보가 당선됐다. 허 신임 회장은 89.80%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전체 투표율은 69.05%다. 임기는 2022년까지 3년간이다. 허 신임 회장은 권리, 조직, 교육, 힐링·문화, 정치 등 5대 공약과 25개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지난 11월 28일 치러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선거에서는 서상목 후보가 제33대 회장으로 연임됐다. 서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3년이다.

고승화 신임 회장 당선소감



"복지단체들과 연계를 통해 제주사회복지협의회가 복지 중심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6일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으로 당선된 고승화 후보(사진)는 당선소감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고승화 당선인은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에 당선됐다."며 "복지가 화두라고 하지만 지금도 현장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을 찾아서 사회복지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인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협의회 11월 후원금 현황

(단위:원)

구 분	후원금 수입	후원금 사용
재가결연후원	430,000	610,000
난치병환아후원	40,000	0
자원봉사후원	645,000	645,000
복지사업후원	975,000	382,070
푸드마켓후원	3,046,132	213,240

발행안내

- 발행인: 부형중
- 편집인: 고봉식
- 등록번호: 제주라 01010
- 창간일: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편집기자: 김승지
- 주소: 제주도 청풍남8길 12-1
- 편집위원실: 070)4726-8825
- 편집디자인: 하늘출판인쇄

2020년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주요 사업 소개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년인사회 • 협의회 소속 4개 봉사회 정기총회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제주 복지 실천가 양성과정 '복지, 제주를 만나다' • 기부식품제공사업 기초사업장 지도점검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감사, 정기이사회, 정기총회 • 빈곤위기가정 돌봄 모니터링 운영(주1회) •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역대 등재자 V-리더스 클럽 운영(5·8·11월)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요원 신규교육(4·6·8·10·12월), 보수교육(3·5·9·11월) • 제6기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 2020 제주나눔대축제 • 2020 사회복지가족 한마음체육대회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회복지 근무자 해외연수 • 직급별 전문교육과정 운영개시(4·5월) • 기부식품제공사업 관계자회의(8·12월) • 제주도푸드뱅크 운영위원회 회의(8·12월)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 기초푸드뱅크·마켓 지도점검 • 도서지역 이동 푸드뱅크 • 기부식품제공사업 기초사업장 실무자 교육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정보활용교육(7·11월) • 사례관리 컨퍼런스(10월) • 제주복지TV 운영 개시 • 모범자원봉사자 해외연수 • 문화공연 전문 봉사단 육성(~12월) • 기부식품제공사업 기초사업장 실무자 교육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총회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만남의 날 • 사회복지자원봉사 가이드북 발간 •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자 선정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지역 이동푸드뱅크 • 자원봉사자 팀워크강화프로그램 • 기부식품제공 우수 사업장 견학 	격월	<p>사회공헌네트워크 정례모임(2월부터 짝수달), 사회공헌 아카데미(3월부터 홀수달)</p>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현장근무자 소진예방교육 '쉽표하나' • 사례관리전문가 양성과정(기초과정) 개강 • 전문봉사단 찾아가는 문화공연(8·10·12월) 	연중	<p>사회복지신문발행, 사회복지정보제공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역사회봉사단 운영,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사회복지인권사랑방 운영, 법률홀닥터 운영, 복지용특장차 대여, 기부식품제공사업 홍보</p>

사회복지현장 내실 다진다

47개 사업 추진...지역과 연결고리 강화 주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무대행 부형중)는 2020년 사회복지 현장과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해 14개 분야 47개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폭넓은 사회복지 정보 제공을 위해 앞장선다. 이를 위해 우리동네 시설단체 정보제공 시스템과 협의회에서 생산된 공문서, 발간물 등을 디지털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아카이브, 도내 다양한 사회복지행

사와 정보를 영상으로 만드는 제주복지TV(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직급별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과 사회복지 종사자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소진예방 교육 '쉽표 하나', 제주이해교육 등이 신규로 신설됐다.

이와함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지역 이동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사회복지 직능단체장 회의를 정례화해 지역 사회복

지의 연결고리를 견고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V-리더스클럽을 운영하고, 문화공연봉사단 육성, 자원봉사자(인증요원) 해외연수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옹호를 위해 법률홀닥터 사업과 연계한 '사회복지 인권 사랑방' 운영으로 인권관련 법률상담·지원, 사회복지시설방문 인권교육 등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사업윤리 실천 캠페인 '선언에서 실천으로'를 추진한다.



12월 기탁 현황

- ▲금강축산유통=돈육 280kg ▲유진상사=오뚜기식품 3,183개 ▲(주)쿵스토어 제주이도점=빵 298봉 ▲금산서당골=돈육 80kg ▲나준수=동원 김세트 509개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 304모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라양계=계란15구 160개 ▲대한축산유통=돼지등뼈 120kg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3,513개 ▲퓨레쥬르 제주탐라점=빵 631봉 ▲모양=빵 313봉 ▲미인빵=빵 233봉 ▲바바오럼=빵 126봉 ▲비엔누아즈=빵 184봉 ▲윤진호 정형외과=쌀10kg 10포대 ▲소민떡방=떡 90개 ▲손뜻모아봉사회=참기름 60개 ▲연세우유제주대리점=우유 650개 ▲이든이네=식료품 70개 ▲임상용=감귤 10kg 10박스 ▲정필이오메기=떡 230개 ▲제주보리촌=보리빵 57개 ▲참새방앗간=떡 1,363개 ▲파파무베이커리=빵 97개 ▲해맑은 떡방=160개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소/식/마/당

(무순)

사업보고 및 탐라인 송년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오승태)은 지난달 5일 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이용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사업보고회 및 탐라인 송년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2019년도 사업보고 영상 상영, (사)제주연예인복조리봉사단(회장 윤세진)의 축하공연, 노래자랑 등으로 진행됐다.

공동체 분위기 형성 노력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16일 유수암 경로당(회장 강대원)을 찾아 직접 만든 김치를 전달했다.

송죽원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소통하면서 거주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울림 페스티벌 공연 선봬



유진 주간활동센터·단기거주시설(원장 최은미)은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제3회 예울림 페스티벌'에 참가해 국악(난타) 공연을 선보였다.

행사에서 센터는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김치 전달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달 5일 6년간 후원을 이어온 (주)인비트원 빈폴과 썸소나이트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홀로 지내는 어르신 30가정을 위해 김장김치 100여 포기를 담아 직접 전달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2019년 만남의 날 개최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지난 11월 16일 롯데시네마 아라점에서 '2019년 자원봉사자·후원자를 위한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용자와 두빛나래 봉사자와 함께 한 음악공연을 시작으로 도움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상식, 영화관람 등으로 이뤄졌다.

이웃사랑 기부식품 전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와 (사)나눔축산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김태환·김홍길)는 지난달 30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무대행 부형중)를 방문해 각각 돼지고기(500만원)와 쌀(43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된 돼지고기와 쌀은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소/식/마/당 (무순)

후원금 기탁 훈훈



보타리에너지(주)(대표이사 김홍삼)와 제주보타리농업학교(대표 김형신)는 지난 10일 보타리에너지에서 제주사회복지협의회(회장 직무대행 부형종)에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번 후원금은 제주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제주도내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그룹홈 물품지원 행사 가져



(사)월드쉐어와 홈플러스는 지난 달 11일 홈플러스에서 제주소나이 그룹홈(대표 김완숙)과 제주몽생이 그룹홈(시설장 윤문희), 제주 예향원 그룹홈(원장 홍영환)에 각 4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물품을 지원받은 그룹홈은 아이들이 해피스폰 저금통에 직접 돈을 모아 해외 그룹홈 어린이들과 따뜻한 밥을 나누는 '해피스폰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했다.

엘린, 친절 관광업체 1위 선정



제주시는 하반기 100여 곳의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친절, 인사, 표정, 고객응대 등 친절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숙박업 부문에서 호텔 엘린(원장 한봉금)이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봉금 엘린 원장은 "직원들이 고객을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친절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만들 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공헌 활동 전개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지난 달 16일 토평동에 있는 가산토방 앞에서 빅토르힐 리조트 입구까지 입주인과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윤리경영실천사업으로 제2차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이 날 사회공헌은 환경정화활동으로 진행됐다. 정혜재활원은 지난 2015년 6월 윤리경영실천 선포식을 시작으로 매해 윤리경영교육 등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특강 펼쳐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윤두호)는 지난 11월 18일과 20일 센터에서 다문화가정 특강(5, 6차)을 진행했다.

18일 진행된 5차는 외국인 인권과 노동법, 직장 내 피해 사례에 따른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적용에 대해 이뤄졌고 6차는 구좌읍 지역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제주 고유 특성과 방언 이해를 통한 영상강의로 실시됐다.

지역주민과 교류의 기회 마련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퍼시픽호텔에서 '2019년 신장장애인과 후원인이 함께하는 건강생활증진강좌'를 개최했다.

이 날 교육은 박원규 SM영상의학과 원장의 건강생활증진강좌를 통한 혈관관리방법 교육과 기념식, 단합의장 등 지역주민과 신장장애인들에게 의료정보를 공유하며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따뜻한 온정의 손길 전해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은 최근 임직원 10명과 함께 노숙인 복지시설 제주시희망원(원장 이경근)을 방문해 돼지갈비 70kg를 후원하는 등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실천했다.

고권진 조합장은 "입주자에게 식사 보조와 배식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마음이 흐뭇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재활 봉사대상 수상



사회복지법인 춘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조인석 원장은 지난 달 14일 서울특별시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청소년대상 제전'에서 사회부분 장애인재활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조 원장은 법무부보호관찰소보호위원, 경찰청인권위원, KBS시청자위원 등을 역임하며 청소년 선도 및 장애인 직업재활에 앞장서온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이웃사랑 후원금 전달



울곡어린이집(원장 문정순)은 지난 달 23일 어린이집에서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로 후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울곡어린이집은 매년 나눔장터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기부하면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문 원장은 "아이들이 나눔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어르신 여가생활 도움 특목



제주양로원(원장 김진우)은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양로원 어르신 38명을 대상으로 등공예와 비즈공예로 나눠 수공예동아리 활동을 운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이 소근육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함께 치매예방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 인권교육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 11월 16·23일, 지난 달 6~7일 도내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주시청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노인 인권교육은 ▲노인인권의 이해 ▲노인인권 감수성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 ▲치매노인대상 공공 후견인 제도의 이해 4가지 내용으로 진행됐다.

성과보고회 사례발표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는 행정안전부, (주)희망이음의 후원으로 지난 달 2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다이몬드)에서 마을중심형 청소년 자립, 창업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성과보고회에서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제주지부에 속한 5개 센터 아동들이 업사이클링을 준비하며 만든 고저스페이스팀이 사례발표를 실시했다.

시론

새해,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2020년 새해가 열렸다. 밝았다는 표현보다는 다소 낮설어 보인다. 새해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희망과 기회의 날들이 열렸음을 강조하고 싶었다. 불운과 좌절, 실패와 후회 등 묵은해의 잊고 싶은 기억들과 단절하고 싶었다.

그러나 경계할 것은 새해 첫 날부터 오늘 내가 한 일이 부끄러운 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옛 성현들은 강조하였다. 새해 어떠한 작심(作心)을 하는지가 우리들의 삶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작심은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는 뜻이다. 새해 작심하면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가 작심삼일이다. 굳게 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가 흐지부지된다는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사람마다 결심을 이뤄내고 지켜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 속담에는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것이 없다고 했다.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국의 맹자가 처음

사용했다는 작심은 원래 긍정적 이미지로 쓰였다. 지나온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다지는 결심이기 때문이다. 작심의 시간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크다. 작심한 것이 비록 삼일에 그친다 해도 그만큼 새롭게 노력했을 터이다.

솔직히 희망 속에 새해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의 전망은 밝지가 않다. 약육강식의 국제 정세의 틈바구니에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야할 정치권부터 상호비방과 갈등이 최고조다. 경제는 좀처럼 나아질 조짐이 없다. 여기에다 사회는 진영의 논리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있다. 언론도 극단적 사고의 틀에 갇힌 꼴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위기의 순간에는 늘 국민이 있었다. 정치권부터 정말 명심할 일이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상호 이해와 상호 존중이라는 희망의 여정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천주교 제주교구장인 강우일 주교의 지난 성탄절

메시지를 인용해본다. “예수님이 남기신 평화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운 가장 무력한 갓난아기가 보여주는 평화이다. 아기는 누구의 것도 탐내지 않고, 빼앗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으며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 강 주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탄생의 갓난아기에게 배워야 한다는 점을 경건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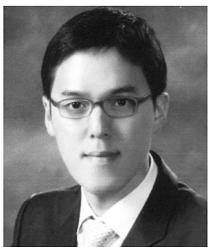
새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새로운 삶은 시작된다. 그 여정에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 누구의 것도 탐내지 않고 빼앗지도 않는 작심이다. 대화와 화해라는 공동선의 실천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범훈 (사)Geo-Jeju 연구소장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66

미성년자 명의 통신비 채무 사례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남편과 이혼한 A씨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법원의 지정을 받았다. 이혼한 지 수년이 흘렀고 전남편이자 아이 아빠 B와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된 어느 날, 통신사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그동안 미납한 통신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착오가 있겠거니 생각하며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본 A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인이 양육중인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휴대폰과 인터넷이 개통되어 단말기 부담금을 포함하여 큰 금액

이 미납된 상황이었고 이는 아이 아빠 B가 벌여 놓은 일이었다.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계약 등)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 명의로 휴대폰과 인터넷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통신사와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통신사에서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계약상의 주체인 미성년자 명의로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명의는 미성년자에게 있지만 통신 사용 요금은 그 법정대리인이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사례에서 문제는 자녀를 키우지도 않고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친부가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아마도 친부 본인이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이 필요했지만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자녀의 명의를 빌려 개통하고는 요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인다. B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본인이 아이의 친부임을 증명하였을 것이다. 이혼을 했고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친부이지만 아이의 아버지임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자관계로 표시가 되는 것이다. 그럼 그 자녀와 친권자 A씨가 미납 통신비를 책임져야 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명의로 체결한 계약은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 이혼 후 자녀의 법정대리권은 친모 A씨만 가지게 되는게 A의 동의가 없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이 미납액은 실사용자인 B가 책임져야 하거나 법정대리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통신사의 손해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특별기고

사회가치 창출을 위해서

연말연시가 되면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런 시기에 발맞춰 지난 12월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용보증기금중앙회가 공동주관하는 ‘2019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가 열렸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란 기업·기관이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많은 기업·기관들이 두 차례 엄격한 심사와정을 걸쳐 명예스러운 인정패를 받는 현장에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지역에서도 제주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제주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제주지역 우수기업·기관들과 연대하여 체계적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를 보다 밝고 건강한 사회로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사회복지 변화의 중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은 점점 사라지고 물질만능주의로 빠져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전 재산을 바쳐 빈민구제에 앞장서온 의녀반수 김만덕, 흥년이 들면 공간을 열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준 것으로 유명한 경주 최부잣집이나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에게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사회적 책임의 역사는 과거부터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많은 독지가 분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이 있기에 사회정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을 통해서도 실천되어 지면서 기부문화가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디지털 사회혁신, 사회적 가치창출을 고려한 사회공헌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이런 사회복지체계의 변화의 속도도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변화의 중심축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야 한다.

협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복지 발전을 견인하는 민간복지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 해 나갈 수 있어야만 되겠다.



고봉식 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

사회복지기관 장관상 수상 잇따라 눈길



제주도내 사회복지기관들이 잇따라 장관상을 수상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일배움터(원장 오영순·사진 왼쪽)는 지난달 5일 경주시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2019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일배움터는 2010년 장애인



인 교육 사업을 시작해 발달 장애인 54명을 대상으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어 같은날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강은숙) 청소년 김 양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성과보고대회에서 청소년우수

사례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양은 어린 시절 겪은 어려움을 극복해 모범이 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사진 오른쪽)도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국 60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우수한 성적을 받아 선정됐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소식

‘2019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은행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지난달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지역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인정패 수여식을 진행했다.<사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0월 지역심사, 11월 중앙심사를 거쳐

최종 121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을 발표했으며, 제주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은행이 선정됐다.

인정기업에게는 ▲ 1년간 해당연도 지역사회공헌 표식을 회사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심사 시 평가우대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및 보증비율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향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매년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하여 해당연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매년 선정된 인정기업 중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장관 표창 및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개소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가 지난 11월 28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제주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대표 최

영열)가 맡아 운영한다.

센터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6호) ▲행복플래너 운영 사업 ▲장애인 안심생활 시스템 설치지원(200가구) ▲장애인 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분절적이었던 사회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가게 된다.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사례발표·상

부모입에서 효자난다



김순덕 온누리봉사회

황혼이 곱게 물드는 저녁 삼양바닷가에 할머니가 어스름 가로등불 아래에서 맨발로 뿔락하게 앉아서 동백씨를 까고 있었습니다. 일몰 대신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할머니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하

고 물어보니 "주갈주갈현 열굴씩영 뭐허젠." 하며 빙새기 웃는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반찬봉사지만 사명감으로 "할머니 식사는 하셨나요?" 하고 물으니 "저기 큰집이 큰아들 집이다 며느리가 반찬을 해오난 저녁먹언에 심심허연 손자파리 영 허염쥬기." 은근히 아들집 자랑도 하신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라 늙으면 모든 것이 느려서 젊은이들이 답답하다 하지. 그래서 아들보고 오막살이 하나 지어 달라고 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

벚들 놀러 와서 좋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하셨어요. 할머니의 건강한 삶이나 정신력을 보니 반찬봉사 대상이 아니셨다.

잡자는 어린자식들 이블 덮어주듯 늙어버린 육신으

로는 큰 도움은 못줘도 말로라도 도움을 주고사 하는 할머니의 건강한 정신력이 대단했습니다.

백세시대라 하여 오래만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자식들이나 젊은 후손들에게 짐이 될 뿐이지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정신줄을 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나 자신과 자식들에게 힘이 되며 복이지요.

“어르신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양서연 작은세상봉사단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첫째 주 일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성이시돌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달 봉사활동을 가는 날이면 "오늘은 가지 말까?"라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어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봉사활동을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느끼는 성취감과 뿌듯함을 떠올리며 일어났고 청소하기가 싫을 때면 '내가 닦고 있는 난

간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잡고 다니시는 난간이야 내가 열심히 닦아야 깨끗하게 잡고 다니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내가 맡은 청소구역을 책임감을 갖고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봉사하러 다니면서 요양원을 깔끔히 청소하는 등 소소한 일 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하고 있는 나에게 '고마워라'라고 지나가는 할머니를 보면서 이런 작은 관심과 도움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봉사활동 시간을 받기 위해 다녔던 나였는데 이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규진님, 강세현님, 강수영님, 강정금님, 강정숙님, 강정윤님, 고경남님, 고경애님, 고경윤님, 고경희님, 고관용님, 고도현님, 고두승님, 고보선님, 고성도님, 고수희님, 고승화님, 고영두님, 고영봉님, 고정언님, 고추월님, 고태언님, 고태준님, 공성용님, 김경수님, 김군택님, 김금자님, 김남식님, 김도영님, 김명수님, 김미숙님, 김석추님, 김성울님, 김성진님, 김수완님, 김순실님, 김순호님, 김여옥님, 김진훈님, 김홍규님, 김효철님, 김희현님, 문성은님, 문정옥님, 문현주님, 박강란님, 박경후님, 박성배님, 박승석님, 박영식님, 박재천님, 박정해님, 박주희님, 부재옥님, 부현철님, 서영숙님, 석 건님, 송옥희님, 신혜교님, 안근보님, 안창준님, 양광호님, 양복실님, 양예홍님, 양용희님, 양운숙님, 양은심님, 양은정님, 양창오님, 양화규님, 오운자님, 오윤정님, 원석철님, 유진의님, 유철호님, 윤미은님, 윤보철님, 윤흥기님, 이귀경님, 이동한님, 이명희님, 이미정님, 이승희님, 이연봉님, 이일형님, 이흥기님, 임주리님, 전영록님, 정영태님, 조성태님, 최영열님, 최은미님, 함성중님, 허철훈님, 홍연숙님, 홍태욱님, 휴완스님

가롤로의 집, 가족사랑상담소, 경천전문요양원, 공생하우스, 굿네이버스 제주지부, 기로회요양원, 꿈꾸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나눔요양원, 남제주요양원, 낭그늘요양원, 내친구가 사는 집 자미성, 다울요양원, 덕유원 공동생활가정,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동제주노인복지센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드림요양원, 마리아의 집, 명유원 공동생활가정, 무지개마을, 미타요양원, 벨엘, 보목지역아동센터, 보은의 집, 봉아름지역아동센터, 비전지역아동센터, 빛과소금지역아동센터,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사랑의 집, 사회복지법인 동광원, 사회복지법인 삼인원,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사회복지법인 유진, 사회복지법인 청수, 사회복지법인 춘강, 사회복지법인 한라원, 사회복지법인 희엘, 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 색달노인복지센터,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서귀포시사랑원,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서귀포작은예수의 집,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센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호요양원, 성가정노인복지센터, 성심요양원, 성안노인복지센터, 성안복지재단, 성요셉요양원, 성이시돌요양원, 성자현, 성지요양원, 세화요양원, 소망요양원, 소망지역아동센터, 신례지역아동센터,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신흥지역아동센터, 아가곶드래, 아가의 집,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아곶노인복지센터, 어울림터, 예코소랑, 엘린, 예담노인전문요양원, 예담재가복지센터, 예천노인전문요양원, 예향원그룹홈, 우도살림소규모요양시설,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원당요양원, 월드비전 제주나눔센터, 위미에덴요양원, 위미지역아동센터,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일배움터, 자광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행복나눔, 전원요양원, 정혜재활원, 제광원, 제광원소규모요양시설, 제남아동복지센터, 제일요양원, 제일지역아동센터, 제주YMCA, 제주Y신용협동조합,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제주글로벌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주노동아복지관, 제주모자원, 제주몽생이그룹홈, 제주보육원, 제주사라의 집, 제주수눔음지역자활센터,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제주시희망원, 제주애덕의집, 제주양로원,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제주요양원, 제주원광요양원,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제주이여도지역자활센터, 제주작은예수의집,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제주장애인요양원,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정신건강복지연구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제주케어하우스, 제주태고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제주평화양로원, 종달지역아동센터, 주사랑소규모요양원, 주사랑요양원,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 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 창암교육활동센터, 창암재활원, 천사의 집, 청각 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돌담·정남, 추자요양원, 춘강장애인근로센터, 탐라노인복지센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평안재가노인복지센터, 평안전문요양원, 평화의 마을, 하나원, 하소로지역아동센터, 한국노인복지센터, 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한국요양원, 한라요양원, 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빛여성의쉼터, 한아름전문요양원, 함덕지역아동센터,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행복동지여자공동생활가정, 행복한쉼터, 혜주원, 훈디사랑요양원, 흥익아동복지센터, 효사랑,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희망나래일터, 희망나래활동센터, 희망모아주간활동센터, LH행복꿈터삼화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진심어린 사랑과 적극적인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직무대행 부 형 중 및 임직원 일동